도미노피자, "피자 주문하면 아이유 브로마이드 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56461?sid=101

금·토·일 한정 선착순 지급  
  
  
  
도미노피자 아이유 브로마이드. (사진=도미노피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도미노피자가 7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마다 전속 모델인 아이유(IU) 브로마이드 지급 이벤트를 국내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아이유 브로마이드 증정 이벤트는 도미노피자의 '치즈 크레이프 샌드 피자(L)'를 구입하거나 최종 결제 금액이 3만원을 넘는 온라인 포장 주문한 19세 이상 온라인 성인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아이유 브로마이드는 매주 금·토·일요일 선착순 5000명에게 아이유 브로마이드 지급하고, 주차 별로 다른 종류를 제공한다. 브로마이드를 수집한 고객에겐 SNS(사회관계망)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재-아이유-신민아-하니, 4인4색 존재감 [화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82/0001062177?sid=106

이정재-아이유-신민아-하니, 4인4색 존재감 [화보]한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들이 함께한 화보가 공개됐다.이번 화보는 지난달 16일 경복궁에서 열린 크루즈 패션쇼에서 진행됐다. 화보에 참여한 앰버서더는 배우 이정재, 가수 겸 연기자 아이유, 배우 신민아 그리고 뉴진스 하니다. 이들은 쇼가 시작되기 전 특별한 순간을 다양한 룩과 함께 선보였다.네 사람의 전체 화보는 W KOREA 웹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다.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아이유→허니제이 울린 '전화 공포증' 뭐길래?…"엄마랑도 힘들어" [엑's 이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1/0001613369?sid=106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아이유에 이어 허니제이도 '콜포비아'임을 고백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콜포비아(Call Phobia)는 전화를 의미하는 '콜'(Call)과 공포증 '포비아'(Phobia)의 합성어다. 즉, 전화 통화에 두려움을 느껴 기피하는 현상을 뜻한다.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이들은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나 메신저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채널 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선공개 영상에서 허니제이는 "전화 하기가 진짜 싫다. 문자로 하라고 한다. 그 사람이 끊을 때까지 쭉 쳐다보고 있는다. 이건 좀 무섭나"라며 콜포비아임을 고백했다.이어 "급하면 문자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전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허니제이는 "전화가 오면 저도 모르게 뭔가 답답함을 느낀다. 소화 안 될때 답답한 그 느낌이다. 진동 자체가 싫어서 진동 울리자마자 끈다. 그 후에야 받을지 말지 고민한다"라고 털어놨다.아이유 또한 지난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가 통화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콜포비아임을 밝혔다. 아이유는 "가만히 앉아서 통화를 잘 못한다. 엄마랑 통화를 하더라도 조금 불편해진다. 유일하게 통화하면서 안 불편한 사람은 매니저 오빠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워낙 일 얘기를 할 게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심지어 인나 씨와 통화하는 것도 힘들어한다. 사실 아무하고도 통화를 못한다"라며 전화 공포증에 대해 이야기했다.엄현경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저 콜포비아다. 너무 떨린다"고 고백했다. 엄현경의 매니저는 "4달 정도 전화를 해본적이 없다. 항상 메시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산다라박은 KBS 2TV '옥탑방 문제아들'에 출연해 "콜 포비아가 있었다. 전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웠다"고 고백했다.   
키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전화 공포증'이 생겼다"며 "휴대폰에 전화만 오면 가슴이 떨린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모든 전화가 올 때 두렵다. 문자는 오면 생각을 하면 적을 수 있는데 전화는 바로 말을 책임져야 한다"고 털어놨다.사진=엑스포츠뉴스DB

아이유 이어 허니제이 '콜포비아' 고백…"전화 오면 안 받고 지켜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14110?sid=102

ⓒ News1 DB(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허니제이가 심각한 콜포비아임을 고백해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방송되는 채널 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는 방송을 앞두고 영상을 선공개했다. 이날 댄스크루 홀리뱅의 수장 허니제이와 홀리뱅 멤버 제인이 함께 출연했다.제인은 스승 허니제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남에게 무신경한 것 같다"며 "메시지도 답장을 잘 안하신다. 안읽씹도 읽씹도 잘한다. 홀리뱅 멤버들은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면 두 번은 안 건다. 한 번 걸었을 때 성공률이 낮긴 하다"라고 말했다.이에 허니제이는 "전화하기가 진짜 싫다"며 "문자 하라고, 카톡하라고 한다. 그 사람이 끊을 때까지 쭉 쳐다보고 있는다. 이건 좀 무섭나"라고 밝혔다.박나래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보고만 있냐"라고 놀라워했다. 또 제인은 "이건 좀 고쳤으면 한다"며 "사람들이 선생님을 생각할 때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허니제이는 "'급하면 문자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자 정형돈은 "급하니까 전화한 거 아닐까?"라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그러자 "나에게 전화했던 사람들 되게 실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말 나쁜 의도는 아니다. 정말이다. 내가 전화를 왜 받기 싫어하는지,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의문을 전했다.한편 앞서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채널 '이지금'을 통해 "나는 통화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 가만히 앉아서 통화를 잘 못한다. 엄마랑 통화를 하더라도 조금 불편하다. 절친인 유인나와의 통화도 힘들다"라고 콜포비아 증상에 대해 털어놔 화제가 됐다.'콜 포비아'(Call phobia)는 전화로 음성 통화를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증세를 나타내는 말로, 전화를 뜻하는 '콜'(Call)과 혐오증,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외래어다.이들은 통화보다는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존스홉킨스대 임상 심리 연구 책임자 앨리슨 파파다키스는 특히 'MZ세대'를 지목하며 "문자와 짧은 메시지가 주된 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화 통화 경험이 매우 적다. 경험이 적다 보니 편안함이 덜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불안에 취약한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불안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지난 2020년 잡코리아가 성인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전화공포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1%가 전화 공포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아이유와 나날이 닮아가네..보호본능 자극 우윳빛피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2/0003641094?sid=106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이종석이 기내 셀카를 공개했다.배우 이종석은 7일 근황을 전했다.이번에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비행기 안에 앉아 셀카를 찍고 있는 이종석의 모습이 담겨 있다.무엇보다 이종석은 흰티 이너에 셔츠를 걸친 채 우윳빛 피부를 자랑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한편 이종석은 현재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공개 열애 중이다. 또 지난 1일 홍콩을 시작으로 타이페이, 자카르타, 두바이, 방콕, 서울 등 총 11개 도시에서 '이종석 2023 팬미팅 투어 'Dear. My With''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이번 팬미팅 투어의 타이틀 'Dear. My With'는 With(이종석 팬클럽)에게 보내는 스윗하고 따뜻한 편지를 콘셉트로, 항상 팬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종석의 다정한 마음을 담았다.

아이유 이어 허니제이도 콜포비아→홀리뱅 제인 "허니제이 읽씹·안읽씹이 기본값"('금쪽상담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6/0004029022?sid=106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가 콜포비아 사연을 고백한다.7일 밤 9시 30분 방송 예정인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는 댄스 크루 홀리뱅의 허니제이와 제인의 고민이 공개된다.'스트릿 우먼 파이터' 최종 우승 크루 '홀리뱅'의 수장 허니제이와 그녀의 오랜 제자 제인. 허니제이는 녹화일 기준으로 출산 50일 만에 첫 예능 나들이에 나선다. 그녀는 딸의 태명이었던 '러브'가 사실 본명이라고 언급하며, 딸의 이름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어 "딸 러브가 벌써부터 그루브를 느낀다"며 수면 교육도 R&B와 바운스로 하고 있다고 딸의 댄스 DNA 자랑에 여념 없는 모습을 보인다."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고민"이라고 밝힌 제인은 "누군가 말리지 않으면 한 달 술 값만 200만 원을 쓴다"고 고백한다. 13년 지기 스승 허니제이마저 몰랐던 사실을 밝혀 고민의 심각성을 더하는데. 제인은 절주를 다짐한 적도 있지만, 참다못해 새벽 6시에 술을 사러 나가는가 하면, 결국 집에 있는 모든 술을 다 꺼내 마셔야 성에 찬다고 술 절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한다.고민을 확인한 오은영 박사는 '4인 가족 한 달 식비가 약 110만원'임을 언급하며, 술값으로 200만원을 사용하는 제인에게 과하다 일침을 날린다. 이에 제인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털어놓으며 걱정이 많은 탓에,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술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허니제이는 "제인은 술을 안 마셔도 걱정이 많다"며 홀리뱅 사이에서 '걱정 인형'이라고 불리고 있음을 증언한다.이를 들은 오은영 박사는 제인이 과한 음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 장애가 오는 '알코올 의존증'이라며 팩폭을 날린다. 이어 제인이 '알코올 의존증'이 된 이유를 속속들이 파헤치며 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안해주었다는 후문. 과연 제인을 위한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은 무엇일지 기대가 모아진다.이어, 허니제이는 "전화하는 것 자체가 싫다"는 의외의 고민을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이에 제인은 허니제이를 향해 "타인에게 무신경하다.", "읽씹·안읽씹이 기본값"이라고 폭로하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고쳤으면 좋겠다고 허니제이에 대한 걱정을 표한다.이에 오은영 박사는 허니제이가 전화를 기피하는 현대인들의 질병인 '전화 공포증'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소통의 수단인 전화가 불편하다면, 대인관계로까지 확장, 타인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심층분석을 이어간다. 이에 허니제이는 "일대일 만남이 어려워 피하게 된다"고 깜짝 고백하는데. 절친한 사이인 MC 박나래가 집으로 초대했음에도 단둘이 있는 게 어색해 초대에 응하지 못했다며, 핵인싸로 알려진 이미지와 상반된 속마음을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다.허니제이의 속마음을 유심히 듣던 오은영 박사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도 불편해하고 있다며, 혹여 다른 사람에게 데인 적이 있는지 질문한다. 이에 허니제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떠나 보내면서 상처받았다고 털어놓는데. "사람들이 모두 저를 싫어하는 것 같다"며 또다시 사람을 잃을까 봐 불안함이 생겼음을 털어놓아 상담소 가족들을 울컥하게 한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자신을 싫어할 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불편해진 것이라고 뼛골 조언을 선사한다. 또한 허니제이 마음속 본질은 "내가 사람을 못 믿겠다"임을 꼬집으며, 그녀가 사람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 있는 것 같다고 날카로운 분석을 이어간다.특히 오은영 박사는 허니제이가 '떠난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캐치한다. 누군가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근원을 파헤치고자 했는데. 이에 허니제이는 8살에 부모님이 이혼했음을 언급하며 억눌러야 했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 줬던 과거를 회상한다. 상담소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 과연 홀리뱅 허니제이와 제인을 위한 오은영 박사의 특급 은영 매직은 무엇일지 오늘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금요일 밤의 따뜻한 공감 토크쇼. 0세부터 100세까지,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멘탈 케어 프로그램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 홀리뱅 허니제이, 제인'편 방송은 7일 금요일 밤 9시 30분 채널A에서 방송된다.

"유재석·임영웅·아이유 나왔다"…복권 1등 대박 안겨준 '연예인 꿈' [MD이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7/0003748162?sid=106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나온 꿈을 꾸고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연이 화제다. 6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스피또1000 68회차 1등에 당첨된 A씨는 "첫째가 유재석 님이 나온 꿈을 꿨다고 해 꿈을 산 적이 있다"며 "덕분에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A씨는 충남 논산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구입한 복권에 당첨됐다.스피또1000 1등 당첨금은 5억 원이다. 한편 연예인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스피또2000 47회차 1등에 당첨된 B씨는 가수 임영웅과 이야기하는 꿈을 꾼 이후 20억 원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스피또1000 67회차 1등에 당첨돼 5억 원의 행운을 거머쥔 C씨가 가수 아이유, 신지 등 연예인 꿈을 꿨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아이유 포토북 팔아요”…170여명에 중고사기 20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20842?sid=102

2년여 걸쳐 연예엔 굿즈, 티켓, 닌텐도 칩 등 판매글 올려물건 안 보내는 방법으로 4800여만원 가로챈 혐의도박 자금 등에 탕진…징역 3년 선고  
  
  
  
국민일보 DB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판매 글을 올리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48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달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간 연예인 굿즈(팬 상품), 축구 경기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70여명을 상대로 4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유 콘서트 포토북 판매합니다’ ‘윤하 앨범 포스터 일괄 양도합니다’ 등 연예인 관련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49회에 걸쳐 1890만2500원을 가로챘다.또 그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또 다른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 “한국 대 브라질 축구경기 티켓 2장을 판매한다. 티켓은 모바일로 보내주겠다” 등의 글을 올리며 피해자들을 속여 234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만화책,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등을 판매한다고 올려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그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A씨는 2020년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1월 가석방됐다.신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액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0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유는 다르다?...1년 채우기도 힘들던 자리를 4년씩이나 이어온 곳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51223?sid=102

제주삼다수 최장수 모델 아이유1년 못 채우던 모델 4년째 이어가올해 두 번째 광고 ‘한결’편 공개  
  
  
  
 29일 공개한 제주삼다수 광고 장면.[자료=제주도개발공사]제주삼다수 최장수 모델 아이유의 올해 두 번째 광고가 공개됐다.제주삼다수는 지난 4월 첫 공개한 ‘약속’편에 이어, 6월 ‘한결’편을 29일 공개했다.푸르른 제주 숲속에서 촬영된 ‘한결’편은 아이유가 ‘평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면을 통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주삼다수의 한결같음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담았다.광고 속 아이유는 청정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결같으니까, 평생의 물로 삼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제주삼다수 모델은 2016년 가수 태연, 2017년 배우 조정석, 2018년 배우 이승기, 2019년 배우 김혜수 등이 맡았었지만, 계약 기간은 1년 안팎에 머물렀다. 하지만 김혜수 이후 아이유가 모델로 선정됐는데, 올해까지 4년 연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4년간 건강한 시너지를 만들어오고 있는 모델 아이유와 함께 삼다수의 독보적인 수질·품질 안전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며 25년간 지켜온 고객들과의 신뢰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올해 출시 25주년을 맞은 제주삼다수는 출시 이래 25년간 누적 매출 3조5000억 원을 넘어서며, 먹는샘물 1위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다.

"유재석·임영웅·아이유 나왔다"…복권 1등 대박 안겨준 '연예인 꿈' [MD이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7/0003748162?sid=106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나온 꿈을 꾸고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연이 화제다. 6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스피또1000 68회차 1등에 당첨된 A씨는 "첫째가 유재석 님이 나온 꿈을 꿨다고 해 꿈을 산 적이 있다"며 "덕분에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A씨는 충남 논산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구입한 복권에 당첨됐다.스피또1000 1등 당첨금은 5억 원이다. 한편 연예인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스피또2000 47회차 1등에 당첨된 B씨는 가수 임영웅과 이야기하는 꿈을 꾼 이후 20억 원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스피또1000 67회차 1등에 당첨돼 5억 원의 행운을 거머쥔 C씨가 가수 아이유, 신지 등 연예인 꿈을 꿨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아이유 파워 대단하네”…완판 이어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다는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53582?sid=103

친환경 브랜드 ‘리포메이션’ 인기몰이친환경 소재에 재고 줄이려 소량 생산가치소비 추구하는 MZ세대 취향 적중  
  
  
  
 리포메이션의 프레이저 드레스를 입은 아이유 [출처=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아이유가 입은 꽃무늬 원피스 주세요.”지난 5월 국내에 론칭한 미국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리포메이션(Reformation)’이 MZ세대 여성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잔잔한 꽃무늬가 특징인 일명 ‘아이유 원피스’는 브랜드 론칭 직후 완판된 데 이어 재입고 이후에도 품절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다.4일 리포메이션을 공식 수입·판매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에 따르면 리포메이션의 ‘프레이저 드레스’는 브랜드 론칭과 동시에 완판됐다. 해당 원피스는 가수 아이유가 시사회에 입고 나타나 화제가 된 제품이다. 셔링과 슬릿 디테일로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한 원피스로 리포메이션 특유의 세련된 꽃무늬 패턴이 특징이다.신세계인터내셔날은 고객들로부터 재입고 요청 및 구매 문의가 쏟아지자 리포메이션 본사에 추가 수량을 요청해 이례적으로 재입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수량 역시 금방 품절되고 말았다.  
  
  
  
 가수겸 배우 윤아가 최근 드라마 소개 영상에 입고 나온 리포메이션의 ‘다프네 블라우스’ [사진 제공 = 신세계인터내셔날]리포메이션은 국내 론칭 전부터 인기 아이돌 멤버들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즐겨 입는 브랜드로 알려지면서 일명 ‘아이돌 원피스’, ‘원피스 맛집’으로 불려왔다. 특히 빈티지 꽃무늬 프린트 원피스는 국내에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론칭 이후에도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 라인이 높은 인기를 끌며 브랜드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리포메이션이 론칭 한 달 여만에 국내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브랜드의 신념인 ‘패션과 지속 가능성의 공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리포메이션은 ‘옷을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옵션이며, 그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옵션은 리포메이션’이라는 브랜드 철학 아래 다양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실제로 리포메이션은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형 공장에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며,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량 생산 및 소량 판매를 원칙으로 삼았다. 브랜드의 이 같은 친환경 행보가 메인 타겟층인 MZ세대 고객들이 지향하는 가치소비 소비 트렌드와 잘 맞아 떨어져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설명이다.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리포메이션은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의 취향에 정확히 적중한 브랜드”면서 “예상보다 더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매출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유통망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유, 데뷔 15주년 기념 ‘순간,’ 개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4/0000896778?sid=106

아이유 전시 ‘순간,’ 개최.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데뷔 15주년을 맞아 미디어 아트 전시 ‘순간, (Moment,)’을 개최한다.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는 29일 “아이유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 성동구 더 서울라이티움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 ‘순간, (Moment,)’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시 타이틀 ‘순간,’은 아이유와 유애나(팬덤명)가 지나온 모든 날이 서로에게 소중히 기억되기에 앞으로 함께 쌓을 모든 순간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소속사 측은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아이유가 데뷔 후 처음 개최하는 미디어 아트 전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전시회는 시간과 오브제를 활용해 디지털 테크와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콘텐츠로 공간을 채웠으며, 다채로운 인터랙티브 요소를 적용해 즐길거리도 제공한다.한편, 아이유는 새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에 한창이다.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줌인] 탑부터 아이유까지..박명수, 작심 발언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1/0003286465?sid=106

가수 박명수. 사진제공=IHQ“제가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맞는 소리 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그걸로 감사할 뿐입니다.”방송인 박명수가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밝힌 작심 발언들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빅뱅 출신 배우 탑을 둘러싼 이슈와 논란에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명수는 5일 측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을 뿐이라고 담담히 전했다. 박명수는 해당 발언들로 인해 때로는 박수를 받고, 때로는 뭇매를 맞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를 흔들림 없이 계속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 쉽지 않은 연예계에서 내용의 시시비비를 떠나 발언 그 자체만으로 여론 형성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박명수는 최근 스피커로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햇수로 8년째 진행하는 KBS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내놓고 있는 발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올해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무슨 일이냐 이게. 아티스트들이 상처 받지 않길 바란다”, 아이유의 표절 의혹엔 “아이유가 무슨 잘못 있냐, 곡 만든 사람에게 따져야지”, 2016년 10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탑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2’ 출연 및 복귀에 찬반 여론이 갈리자 “양쪽 말이 다 맞지만 그래도 젊은 친구니까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한 것들이 대표적 예다. 해당 발언들은 이슈 자체의 높은 화제성, 오랫동안 연예계에 몸 담고 있는 박명수의 경력에서 오는 신뢰성과 맞물려 더 주목 받았다.   
사진제공=MBC 캡처 박명수의 발언들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한다. 마약 전과가 있는 탑을 감싼 듯한 발언은 도가 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론 박명수의  발언들 중 일부는 또 다시 이슈가 되며 비판의 화살을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공론화를 더 크게 형성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박명수의 발언으로 인해 비단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의 댓글창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람들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 자연스럽게 공론장이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예능인들의 친숙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이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더구나 박명수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거침이 없는 이미지로 인해 여타의 연예인들보다 이슈 관련 발언들이 부담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이익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나름의 신뢰성도 쌓여 있다. 그동안 ‘무한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소 무례하게도 비춰졌던 언행을 캐릭터로 만들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온 것이다. 평소 방송에서 버럭하는 이미지로 ‘호통 명수’라는 별칭을 얻은 이후 박명수의 언변 스타일은 친근감을 높였고 이렇게 쏟아내는 말들은 ‘어록’으로 만들어지거나 ‘밈’으로 공유되면서 팬들을 늘리고 있다. ‘고생 끝에 골병 든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등이 대표적 예다.   
사진제공=MBC 캡처 박명수의 발언들도 ‘상식’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박명수의 발언들은 ‘어록’ 등으로 인해 이미 예능에서의 이미지와 맞물려 담론화가 형성돼 왔다”며 “특히 그 담론화의 정도는 언제나 누구나 받아들일 만하거나 의견을 섞을 수 있는 정도다. 민감하거나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이슈 등은 가급적 발언하지 않는데 이를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도 박명수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 좌우가 아니라, 연예인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다른 시민들이 생각해볼 만한 적절한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슈에 대해선 가급적 의견을 내놓지 않는 연예계 관행을 따르지 않는 행동이다. 소신 있는 행동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의미를 짚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